

[신간] 나보다 불행한 아이

등록 2024.12.18 01:01:00



[서울=뉴시스] 나보다 불행한 아이(사진=문학과지성사 제공) 2024.1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찬을 만나기 전, 달아는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했다."

주인공 '달아'와 '찬'은 기구한 사연을 가진 중학생이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난 달아는 새아빠가 떠난 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무기력한 엄마와 아빠가 다른 어린 남동생을 돌보며 일찍 철이 든다.

찬은 베이비박스에서 버려진 아이로 따뜻하고 자상한 부모님의 돌봄 아래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또다시 버림받을까 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교회에서 만난 두 아이는 우연한 계기로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고 비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동질감을 느낀다.

달아는 찬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억울하다고 여겼는데 자신보다 불쌍한 아이도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부모님이 누구인지 얼굴조차 모르는 찬을 위로하며 이상하게도 자신이 위로받는 느낌을 받는다.

소설 '나보다 불행한 아이'는 작가 유니게가 3년 만에 펴낸 여섯 번째 성장소설이다.

작품은 남의 불행을 보고 위로받는 인간의 보편적 심리를 청소년기 아이들 모습을 통해 그려내 공감과 치유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 사건을 계기로 둘은 부쩍 가까워졌다. 찬도 달아도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찬은 달아에게, 달아는 찬에게 할 수 있었다. 찬은 달아의 아빠와 유지의 아빠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달아는 찬의 어깨를 토닥여주었다. 달아는 찬을 위로하면서 이상하게도 자신이 위로받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50~51쪽)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